



즉시 배포용: 2018년 3월 11일

ANDREW M. CUOMO 주지사

공정하고 공평한 학교 기금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ROBERT MUJICA 예산국장의 성명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정부의 최우선 사항 중 하나입니다. 모든 정치가는 이를 그들의 연설에서 언급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사여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책 논의가 이 중요한 사안에 있어 얼마나 무지한지를 생각하면 실로 놀랍습니다. 뉴욕주 예산은 향후 몇 주 안에 책정될 것입니다. 주지사님의 예산은 사회 정의에 있어 필수적인 문제인 주요 교육 개혁을 추진 중입니다. 우리 예산은 공정성 및 공평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교육 기금 지원 절차의 투명한 공개를 의무화합니다.

먼저 명백한 진실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뉴욕주에는 공교육과 사교육이 아닌 두 개의 교육 제도가 존재합니다. 한 제도는 부유한 사람을 위한 것이고 다른 제도는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전반적인 기금 수준이 아닙니다. 뉴욕주는 다른 어떤 주보다 학생 1인당 더 많은 기금을 지원하며, 이는 전국 평균 기금의 2배에 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가난한 학교와 부유한 학교 사이에 기금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육 제도는 연방 정부, 주 정부 그리고 지방세에서 기금을 지원받습니다. 부유한 지역사회는 추가 지방세를 통해 기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부유한 지역은 종종 더 많은 기금을 지원 받는 학교를 보유하게 됩니다. 문제는 소수자로 이루어진 가난하고 성과가 저조한 학교를 위한 기금의 공평성입니다.

먼저, 방해 요소, 신화 그리고 전설 같은 이야기는 생략해 봅시다. 지지자와 공무원들은 종종 1990년대 초의 “재정 평등 캠페인(Campaign for Fiscal Equity, CFE)” 소송에 관해 논쟁할 것입니다. 뉴욕시 학교들이 충분한 기금을 지원받지 못했다는 재정 평등 캠페인(CFE)의 주장에 기반을 둔 이 소송은 궁극적으로 뉴욕주와 법정이 뉴욕시, 뉴욕주 및 연방 정부에서 지원받는 19억 달러의 기금 인상에 찬성하도록 이끌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뉴욕시 학교를 위한 기금은 상당한 수준으로 늘어났으며, 정확한 수치로는 185억 달러에서 오늘날 308억 달러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정보와 노골적인 속임수는 계속해서 재정 평등 캠페인(CFE)의 상황을 어지럽게 만들었습니다. 몇 공무원들의 이기적인 거짓 주장과는 다르게, 뉴욕주는 절대 재정 평등 캠페인(CFE)에 의한 어떤 기금도 강요하지 않았으며 총 19억 달러의 기금을 지원하기 위해 뉴욕주,

뉴욕시 그리고 연방 정부와 협력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은 2006년에 기각되었으며 오늘날 논의와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현재 재정 평등 캠페인(CFE)에 의한 뉴욕주, 뉴욕시 또는 연방 정부의 부채 또는 강요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Cuomo** 주지사님은 뉴욕주 전역의 학교를 위한 기금을 상당한 수준으로 늘리셨습니다. 주지사님의 예산에 따라 뉴욕주의 교육 기금은 7년 동안 35%, 즉 195억 달러에서 264억 달러까지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의 세 배 이상이며, 주지사님이 취임 당시 의회와 함께 통과시킨 법으로 명시된 교육 기금 상한선보다 10% 높은 수치입니다. 교육 부문은 뉴욕주 예산에서 가장 크게 인상된 비율로 기금을 지원받았으며, 저희는 이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육 논의는 목표 달성에 실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뉴욕주의 전반적인 기금 지원이 아닙니다. 뉴욕주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교육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가난한 학교가 부유한 학교에 비해 얼마나 많은 기금을 지원받느냐는 것입니다. 재정 평등 캠페인(CFE)은 마치 뉴욕시 전역이 가난한 지역인 것처럼 뉴욕시가 지원받는 총 기금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뉴욕시에 살고 있으며, 가난한 지역사회와 부유한 지역사회 사이의 학교 성과에는 커다란 격차가 존재합니다. 진정한 사회 정의 문제는 뉴욕시의 가난한 학교들이 동등하게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투명성의 부족입니다. 교육청은 각 학교가 지원받는 기금 총액과 이 기금을 책정하는 데 고려된 요인들을 밝히려고 하지 않습니다. 뉴욕주는 각 교육청에 기금이 얼마만큼 분배되는지 알고 있지만, 교육청은 이 기금이 그들의 가난한 학교와 부유한 학교에 어떻게 분배되는지 보고하지 않습니다.

흥미롭게도 지지자, 기자, 주 및 지방 정부 공무원들은 이 문제를 대부분 무시해 왔습니다.

소규모 교육청이 기금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교육청이 기금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예를 들어, 버펄로, 로체스터, 시러큐스, 올버니, 용커스, 뉴욕시는 개별 “지역구”입니다. 뉴욕주는 버펄로에 매년 7억 6,200만 달러를 지원합니다. 저희는 버펄로에 소재한 54개 학교에 분배된 이 기금의 공개를 검토하거나 의무화하지 않습니다. 로체스터는 50개 학교, 시러큐스는 32개 학교, 올버니는 15개 학교 그리고 용커스는 39개 학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뉴욕시는 1,600개의 학교와 308억 달러의 예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들은 어떻게 분배되니까? 뉴욕주 상원의원과 하원의원 그리고 뉴욕시 의회는 그들의 각 지역구에 소재한 학교에 몇 퍼센트의 기금이 분배되느냐는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곤란해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 명백한 문제를 무시해 왔습니까? 바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지역구의 기금 수준은 대부분의 로비스트 및 기관 종사자와 긴밀하게 연관된 급여와 관리 비용을 책정하기 때문에 학교 기금 수준은 그간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문제는 논쟁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만 꼭 해결해야 하는 필수적인 문제는 “공평한 기금”이란 무엇이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공평한 기금”이란 모든 학교가 동일한 비율의 기금을 지원받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지사님은 이것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공정함은 특정한 학생 집단의 필요와 상황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주지사님은 만성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학교가 우선적으로 주목과 기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재정 평등 캠페인(CFE) 소송의 올바르며 근본적인 요지였습니다. 우리는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며, 이는 학교별 평가와 분석을 통해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박식한 논의를 통해 다음의 두 가지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첫째, 본질적으로 불공평한 재산세 기금 시스템으로 인한 격차를 완화하는 데 몇 퍼센트의 주 정부 기금이 쓰여야 하는가. 둘째, 가난하고 성과가 저조한 학교를 지원하는 데 몇 퍼센트의 주 및 지방 정부 기금이 쓰여야 하는가.

저희는 올해 초 주지사님의 예산에서 이 논의를 시작하여, 인상된 주 정부 기금의 **75%**를 가난한 학교에 분배하는 절차를 통해 뉴욕주 전역의 교육 기금을 공평하게 만들 것을 제안했습니다. 저희가 제안한 비율은 너무 높은지 낮은지와 관계없이 추후 논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를 환영합니다. 다음의 명백한 질문은 지역 교육청이 어떻게 그들의 부유한 학교 또는 가난한 학교에 기금을 분배해야 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주지사님이 제안하신 대로 모든 지역 교육청이 동일하게 **75%**의 기금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까? 몇 퍼센트의 기금이 만성적으로 성과가 저조한 학교에 지원되어야 합니까? 이러한 질문들이 우리 논의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우리는 사실을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주지사님은 올해 예산에서 지역 교육청이 기금 지원 과정의 일부로서 학교별로 기금을 배분해야 한다고 제안하셨습니다. 우리는 교육 기금에 관한 교양 있는 논의를 하고 학생들의 필요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시민들은 시장과 주 대표자들에게 몇 퍼센트의 기금이 성과가 우수한 학교와 성과가 저조한 학교에 지원되는지 물어보아야 합니다. 학교는 얼마나 기금을 지원받았습니까? 이는 성과, 인종, 가난, 필요성을 모두 고려하여 책정된 기금입니까? 교육청이 기금을 “재정적으로 공평하게” 분배하고 있습니까?

교육은 현세대의 시민권 투쟁과 다름없습니다. 주지사님은 브라운 대 교육위원회 판례(**Brown v Board of Education**) 이후 우리가 얼마나 진정으로 성장했는지 올바르게 묻고 계십니다. 가난한 학교와 부유한 학교에 대한 기금의 공평성은 근본적인 사회 정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면 올해 안에 예산 결의안이 가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